

안전하고 편리한 산책 환경 만든다

익산시, 옹포산립문화체험관 녹차밭산책길 보강추진... 내달 5일까지 야자매트·로프난간 등 설치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탐방객들에게 최북단 녹차밭 자연경관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야자매트 및 로프난간 등을 설치하는 녹차밭산책길 보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녹차밭 산책로 5개 구간을 개설하고 주요 산책길에 목재계단 30m, 통나무 흠막이 작업을 63m 구간에서 시설했으나 흠막이 설치구간의 보양유실과 미끄러움 방지를 위해 보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사업비 700여만원을 긴급 투입해 오는 12월 5일까지 야자매트와 로프난간을 설치하는 등 녹차밭산책길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이날 "익산의 자랑인 옹포산립문화체험관이 시민과 학생들로부터 사랑받는 휴양·체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롭게 개관한 산림문화체험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옹포산립문화체험관은 지상2층 연



익산시는 그동안 녹차밭 산책로 5개 구간을 개설하고 주요 산책길에 목재계단 30m, 통나무 흠막이 작업을 63m 구간에서 시설했으나 흠막이 설치구간의 토양유실과 미끄러움 방지를 위해 보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면적 477㎡로 숲 카페, 다도체험실, 목공체험실, 제다체험실 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5.8ha 규모의

최북단 녹차밭이 분포하고 있어 각종 체험과 녹차밭을 감상할 수 있다. 산림문화체험관 이용신청은 공휴일

을 포함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862-19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자기계발 능력 함양 위한 삼합신사 경진대회 열어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는 재학생들의 자기계발 능력 함양을 위한 2017 삼합신사 경진대회를 열었다.

27일 원광대에 따르면 교육혁신인증원과 프리임사업단의 주관으로 최근 학생지원관에서 열린 경진대회는 개인 포트폴리오 작성을 통해 효과적인 전공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업 활동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능력 및 자기계발 능력 배양을 비롯해 포트폴리오 발표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개발과 맞춤형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경진대회는 우수 포트폴리오 전시회와 우수사례발표, 초청 강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으며, 윤미정(해피파인더) 컨설턴트의 허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 비전을 위한 경험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특강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찾고 원하는 일을 계획해 실천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김도종 총장은 "100세 현역시대를 지금 현대인들은 최소 3개의 직업을 가져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유학(遊學)적 능력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삼합신사의 국제(國際), 학제(學際) 능력을 비롯해 우리 학교만의 특징인 직제(職際)능력을 반드시 익혀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 400여 명의 재학생이 지원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포트폴리오 심사 등을 통해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인가상 수상자가 가려졌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상장과 부상이 주어졌다.

대상을 받은 강유미(원예산업학과 3년) 씨는 "그동안 우리 대학에서 진행한 경진대회에 거의 참가해 경쟁력을 갖췄다"며, "삼합신사 경진대회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내가 공부한 것

들을 정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도종 총장이 유·복합적인 개인별 맞춤 교육 집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삼합신사(三合紳士)는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육성 과제로서 다문화 수용하는 국제신사(國際紳士, trans-national), 여러 학문 영역을 이해하는 학제신사(學際紳士, trans-disciplinary), 다양한 종류의 직업 능력을 갖추는 직제신사(職際紳士, trans-competency)로 구성돼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상생발전·일자리 창출 관내 기업인과 간담회 성료

문동신 군산시장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7일 군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산업단지 주요 기업인 등 1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에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대한 필요성, 내 고장 생산품 구매, 군산시 주소 갖기 운동, 기업사랑 4개 분야 28대 전략과제 등 주요 시정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한 기업인들도 산업단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 관내 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리고, 시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이웃사랑의 온도는 상승 중 군산도시가스 이웃돕기성금 1천만원 기탁

군산도시가스(대표 윤인식)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사용해 달라며 27일 이웃돕기성금 1천만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 연탄지원 등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지난 27일 매서운 초겨울 한파 속에서도 군산상공회의소와 군산도시가스 임직원 40여명이 사랑의 연탄을 직접 대상자 가정에 전

달하는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쳐 그 의미가 더해졌다.

이날 함께한 군산상공회의소 김동수 회장은 "최근 군산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과 같이 사랑과 관심을 함께 나누면 군산시가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인식 군산도시가스 대표는 "사랑의 연탄나눔과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세광골드, 인증서·현판 수여

익산시,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로 선정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27일 오후 시청 시장실에서 익산시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로 선정된 세광골드(대표 김상권)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했다.

시는 지난 10일 익산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로 영등동 귀금속단지에서 위치한 세광골드(대표 김상권)를 선정했다.

시는 우수제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공고를 하고 관내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했다.

이번에 선정된 세광골드는 많은 양의 디자인 견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율해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만큼 해외 각국에 금, 은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전문기업이다.

시는 선정된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

체를 지원하기 위해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각종 매체 홍보,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 홍보책자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수여식에서 세광골드 김상권 대표는 "익산시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 익산시의 귀금속보석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보석도시 익산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자긍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김상권 대표의 지역의 귀금속보석산업 발전을 위한 헌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보석도시 명성에 걸맞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수제조업체 선정으로 자긍심을 갖고 더욱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9일 정책세미나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오는 29일 개항 그리고 도시의 변화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국 개항도시에 대한 사례연구와 비교를 통해 군산의 근대역사가 갖는 의미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의 근대역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산과 부산, 인천, 목포 등 4개 근대 개항도시들의 특징과 도시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예정이다.

군산대학교 김민영 교수의 사회를 통해 ▲1897년 목포 개항과 도시화 과정의 특징(목포대학교 도시문화연구원 최성환 교수) ▲개항장 도시 부산의 변화와 복잡성(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구소 차철욱 교수) ▲인천의 개항과 도시발전(인천사립검단선사박물관 연창호 학예연구원) ▲일제강점기 군산의 도시화 과정과 주민들의 삶(서울대학교 김태웅 교수) 등 4가지 주제를 다룬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0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